



이재순작 '석가모니불'

■지금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선... 佛母 19명 대표작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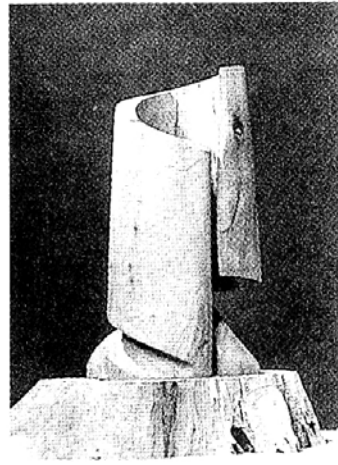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드는 사람을 불모(佛母)라 한다. 불 보살상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그 시대상과 사회분위기도 은연 중 드러난다. 이때문에 불상의 얼굴은 영락없이 만드는 사람을 닮는다고 한다. 이 시대 불모들이 제작한 대표적인 불상들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여주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은 개관 5주년을 맞아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현대 우리나라 불모 19명의 대표작들을 한자리에서 전시하는 기획전시회 '불모(佛母)전'을 개최한다. 목아박물관 1층 전시실과 야외 조각공원에서 열리는 '불모전'에는 작품 경력 20년 이상 되는 장인들 19명이 참여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씨를 비롯 우백

현 김기식 양봉철 이진형 이재순 한봉석 류수관 김광현 박찬봉 씨 등이 나무 돌 점토 등으로 제작한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해수관음 수월관음 약사여래 금강역사 지장보살 나한 등 다양한 모습이 공개된다.

또한 이영삼씨의 '사유상'과 남기철씨의 '구상'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구상화시킨 불상의 모습으로서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 대부분은 국가 지정 문화재 조각수리 기능인들로 불교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화려하고 전국 사찰의 불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찬수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불교조각의 전통을 잇고 오늘과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실험적인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불교조각의 발전을 위해 불모전과 같은 기획전을 연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남기철작 '구상'

(0337)85-9952
한편 12~15일 여주 도자기를 대표하는 태동회가 도자기 전시회도 함께 갖는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30)

기쁨도 그저 그렇게

登嶺採茶 (등령채다)	고개 올라 차잎 따고
引水灌花 (인수관화)	물 끌어 꽃밭에 대다
忽回首山日已斜 (홀回首山日已斜)	머리 돌리니 햇살은 이미 기울다
幽庵出聲 (유암출성)	그윽한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
古樹有雅 (고수유야)	늙은 고목에 까마귀 깃들여
喜如此開如此樂 (희여차한여차락여차가)	기쁘다. 이렇듯 한가롭고 이렇듯 즐겁고 이렇듯 아름다워
身著袈裟 (신착가사)	몸에는 가사를 입고
頂禮彌伽 (정례미가)	가즈런히 조아려 예 올리며
朝飲露夕餐飛霞 (조음로석찬비하)	아침엔 이슬 마시고 저녁엔 안개 밟
達磨何物 (달마하물)	달마가 무엇이며
臨濟誰家 (임제수가)	임제는 뉘 집인가
會見毫光乘雲氣託蓮花 (회견호광승운기탁연화)	마침 호광을 보고 구름을 타고 연꽃에 기탁하다.

연과대사의 사(詞)이다. 사 앞의 사는 산중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상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산에 올라 차를 따고 내려와서는 꽃밭에 물을 대려 수의 사가 있으니 역시 대가 기울어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온다. 산에서는 저녁 여불의 종이 울리고, 잘 새는 집을 찾아 되돌아온다. 이것이 즐거움이다.

다음의 사는 선승으로서의 생활이다. 가사 입은 단정한 모습에서 예불의 장중함과 달마다 임제다 하는 조사에게도 집착이 없는 선사의 일상이다. 이준찬 <동국대 교수>

반가사유상 美 나들이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기념 국보 9점등 문화재 121점 8개월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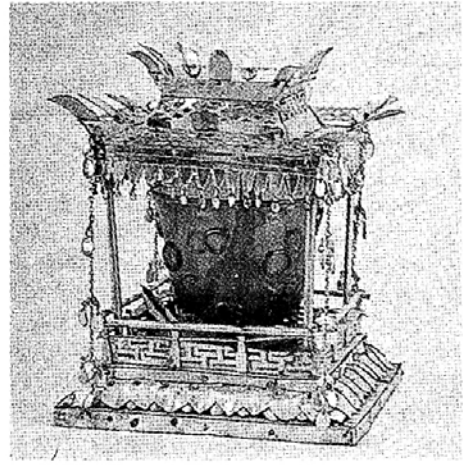
한국 불교미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국보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우리 문화재 1백21점이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전시된다. 세계3대 박물관의 하나인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한국실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한국미술특별전'에 출품되는 유물은 국보 9점, 보물 24점 등 총 1백21점. 전시기간은 6월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9년 1월24일까지 약 8개월

간. 해외의 단일 박물관에 이처럼 대규모로 장기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 한국미술전에 출품되는 문화재중 금동미륵반가상은 한국적 불상 모습을 완성시킨 가장 오래된 작품. 이외에 7세기 신라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금동보살입상(국보 183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국보 215호), 14세기 중반의 불화인 아미타삼존도(국보 218호), 고려시대 은입사정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청동 은입사정병(국보 92호), 송림사5층전탑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합(보물 325호) 등도 8개월동안 현지에서 한국미술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과시할 대표작품이다. 이들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 국립경주박물관, 호암미술관, 호림미술관 등 14곳에서 출품됐다.

한편, 문화재 일부에서는 진품 문화재들이 대규모로 장기간 해외에서 전시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런기사 21면>

윤기석 기자



보물 325호로 지정돼 있는 송림사 5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합.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에 8개월간 전시된다.

지역문화유산 책 내용 알차다

사료·답사안내등...포켓용도

지방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유산 관련 책자들이 지역 문화재를 단순히 소개하는데서 탈피, 지역문화 연구에 기초사료를 제공하거나 주제별로 지역문화의 안내하는 등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문경문화원의 <문경의 문화재대관>, 상주문화원의 <상주문화유적>, 경기 광주문화원의 <광주향토사료집>, 홍천문화원의 <홍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은 향토사와 문화유적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기초사료가 되고, 영암문화원의 <월출산의 불교유적>, 안동문화원의 <안동의 뿌리찾기>, 충주문화원의 <충주를 중심으로 한 옛 과거길> 등은 답사객들을 위한 주제별 안내서, 또 상화문화원의 <천안 매장문화재 관련자료집> 춘천문화원의 <춘주문화>



등은 방치돼 있는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한 보고서이다. 특히 강릉문화원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포켓용 수첩 <강릉의 문화유적>을 제작, 택시기사·관광안내원 등에게 배포해 지역문화유산을 알리는 지침서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당진의 옛 지도를 통해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든 당진문화원의 <당진의 옛지도>와 역대 서산문화재의 프로그램 분석과 설문조사, 전문가의 연구 등을 통해 서산문화재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 서산문화원의 <서산시 문화상징 조사 및 문화축제 기획 방안>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석>

문화 단신

백두대간 남북사진전

백두대간을 따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조국 산하를 한눈에 보며 '하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남북 공동 사진전이 11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는 안승일 문순화 김근원 등 남한 작가와 김용남 리성일 리태권 등 북한 작가 등 모두 71명의 사진작가들의 작품 120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02)705-0999

東大 국악과 발표회

동국대 국악과(학과장 박상진)는 5일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불교음악 논문·작곡 발표회를 갖는다. 동국대에 국악과가 지난 95년 생긴 이래 첫 졸업생이 될 4학

년생들이 발표하는 이번 논문과 작곡 발표회는 전통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불교음악 창달을 위해 헌신하게 될 국악과 학생들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들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당일 오후2시부터 시작되는 발표회에는 '식당작법의 의식에 대한 비교연구'(백명연)등 논문 4편이, 오후5시부터는 '예불'(심규현) 등 창작곡 9곡이 발표된다.

봉은소년소녀합창단 모집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초등학교 2년~중학교 3년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할 소년소녀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하는 소년소녀 합창단의 상임 지휘자 및 지도교수는 정부기 교수(중앙대 작곡과)이며 선발되는 소년소녀 합창단은 국내 각 불교행사 및 해외에서 연주활동을 갖는다. (02)511-6070

북한본 고려사 CD롬 제작

한문·국역 검색-미공개 문화재도 수록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정사(正史)로 꼽히는 고려사가 CD롬으로 나왔다.

데이터베이스 전문개발업체인 누리미디어(대표 최순일)는 최근 북한 사회과학원이 66년 번역한 고려사를 자료본으로 <CD롬 고려사>를 제작, 고려시대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총 1백39권의 <고려사>를 두 장의 CD롬에 담은 <CD롬 고려사>는 어휘별 검색, 주제별 검색, 한문원본과 국역본 동시검색 등이 가능하며, 북한소재의 미공개 고려시대 문화재 슬라이드도 다량 수록하고 있다. 북역 고려사는 중학생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고유명사에 풀을 갖거나 주요단어와 문장에 주석을 다는 등 친절하고 상세한 번역이 특징이다.

누리미디어는 남북통일을 대비, 북한과 저작권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 출판교류의 붐을 트게 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201 - 생활불교편

菩提道次第

“대승불자를 위한 수행의 거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聖典)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던 스승 아티샤는 소승과 대승을 망라한 『보리도차론(菩提道燈論)』을 결집하였고, 티베트의 스승 쯙카빠 또한 그 뒤를 이어 『보리도차제』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 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도차제』에 의거한 여러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은 위의 경전에 의거하여 선정이나 지혜, 공성 등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책이다. 삼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을 가진 티베트인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이 책은 생활 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초월 스님 편역●
66면 172쪽/한 400원
여시이문 펴냄

삼사도에 따른 수행의 길 제시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 즉,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수행의 첫 단계인 하사도(下士道)의 가르침은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中士道)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친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上士道)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제하는 실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